

# 공 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2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6. 30.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6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장조 태봉도 (莊祖 胎封圖)	1폭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2	순조 태봉도 (純祖 胎封圖)	1폭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3	헌종 태봉도 (憲宗 胎封圖)	1폭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4	건칠보살좌상 (乾漆菩薩坐像)	1구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5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金銅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불상 3구, 복장유물 19건 195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7권 2책	대한불교조계종 도연사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예고】

□ 장조 태봉도(莊祖 胎封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장조 태봉도(莊祖 胎封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59.1×79.1cm, 화면 101.9×64.3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85년(정조 9) 경
- 사 유

‘장조 태봉도’는 1785년(정조 9) 제작된 것으로, 정조(正祖)의 아버지 사도세자(1735~1762, 후에 장조로 추존)의 태실(胎室)을 그린 산수도(山水圖)이다. 장조는 1735년 1월에 태어난 후, 윤4월에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뒤편에 태실을 만들어 태를 모셨다. 이후 정조의 사도세자 추숭에 따라 1785년 왕에 해당하는 태실가봉(胎室加封)으로 격상하여 난간석(欄干石) 등 석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화면은 먹과 색을 이용하여 타원형 구도에 수많은 산봉우리를 채워 넣었는데, 하단부에는 산봉우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그렸다. 주요 건축물에는 이름을 적어 놓았고, 붉은 선으로 도로를, 푸른 선으로 물길을 표시했다. 화면 상단에 멀리 원각봉(圓覺峯)을 뾰족하게 표현하고, 가운데에 명봉사(鳴鳳寺)와 문종태실을 배치했다. 그 위로 “경모궁 태실(景慕宮 胎室)” 즉 사도세자의 태실을 그렸다. 태실은 이중으로 된 연꽃지붕이 있는 개첨석(蓋簷石)이 얹힌 중동석(中童石)이 있고 팔각의 난간석이 둘러 있으며, 앞쪽에는 귀룡대석(龜籠臺石) 받침에 표석(標石)이 세워져 있다.

전체적인 기법은 주요 지명을 기입하거나 사방으로 펼쳐진 개화식(開花式) 구도, 줄지어 있는 삼각형 산형, 짙은 먹으로 거칠게 표현한 산봉우리 등으로 보아 지도식 표현이 두드러진다. 반면 짙은 가로 필획을 반복하여 나무를 묘사하였고, 호초점(胡椒點, 후추알처럼 작은 점을 찍은 기법)으로 수풀을 나타냈으며 열은 청색과 갈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점 등 산수화로서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장조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장태(藏胎) 문화를 의례화시켜 새로 태어나는 왕자녀의 태를 길지(吉地)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安胎儀禮)를 정착시킨 조선왕실의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자, 장조의 태실을 그린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성·희소성이 돋보인다. 아울러 제작 동기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태실과 관련된 왕실 회화로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 순조 태봉도(純祖 胎封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순조 태봉도(純祖 胎封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41.2×82.9cm, 화면 102.0×62.3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06년(순조 6) 경
- 사 유

‘순조 태봉도’는 순조가 1790년에 태어난 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태실을 만들어 태를 안치한 태실의 형상과 그 주변 지형을 그린 것이다. 순조의 태실은 순조가 1800년 즉위한 후 6년이 지난 1806년(순조 6)이 되어서야 태실가봉(胎室加封)으로 격상시켜 난간석 등 석물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S자 형태의 경계에서 오른편 위에 둥근 봉우리를 배치하고 그 위에 태실을 표현했으며, 왼편 아래에 여러 전각으로 이루어진 범주사를 그렸다. 둥근 봉우리의 주위 배경에 아무 것도 그려 넣지 않아 태실을 돋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세부 표현을 상세하게 묘사했는데, 연꽃지붕이 있는 개첨석(蓋簷石)을 얹은 중동석(中童石)이 있고 팔각의 난간석이 둘러쳐 있으며, 앞쪽에는 귀룡대석(龜籠臺石) 받침에 표석(標石)이 세워져 있다. 범주사 팔상전, 수정봉 거북바위, 평평한 문장대 등 속리산 일대의 주요한 경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묘사한 것도 특징이다. 붉은 선으로 도로를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정확한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점, 필획을 반복해 무성한 나뭇잎을 표현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도와 산수화로서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순조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장태(藏胎) 문화를 의례화시켜 새로 태어나는 왕자녀의 태를 길지(吉地)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安胎儀禮)를 정착시킨 조선왕실의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제작 동기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태실과 관련된 왕실 회화로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 헌종 태봉도(憲宗 胎封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헌종 태봉도(憲宗 胎封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40.5×82.5cm, 화면 98.8×60.2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47년(헌종 13) 경

○ 사 유

‘헌종 태봉도’는 헌종이 1827년에 태어난 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에 태실을 만들어 태를 안치한 태실과 주변 경관을 그린 작품이다. 헌종이 1834년 즉위한 후, 13년이 지난 1847년에서야 태실가봉(胎室加封)이 이루어졌으며, 이 그림은 당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1847년에 이루어진 태실가봉 과정은 『(헌종)성상태실가봉석란간조배의궤(聖上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화면은 전경(前景), 중경(中景), 후경(後景)의 구성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수화 구도를 보여 준다. 전경에는 지붕이 보이는 마을이 있고, 중경에 송림에 둘러싸인 가봉태실을 가운데 배치하고, 원경에는 주봉과 멀리 보이는 먼 산을 소략하게 그렸다.

화면의 가운데에 태실을 표현하고, 그 주위로 산수풍경을 효과적으로 배열했다. 태실의 아래편에는 무성한 나무숲을 채워 넣고, 그 위의 주위 배경은 여백으로 비워 놓아서 태실을 돋보이도록 했다. 태실은 연꽃지붕이 있는 개침석(蓋簷石)이 얹힌 중동석(中童石)이고 팔각의 난간석이, 앞쪽에 놓인 귀룡대석(龜籠臺石) 받침에 표석(標石)이 세워진 모습 등 상세히 표현되었다.

이 그림은 다른 태봉도와 달리 지도식 표현이 거의 없고 산수화풍이 많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능숙한 필치로 괴량감 넘치는 산봉우리를 표현했고 부드러운 색채로 입체감을 나타냈다. 옅은 청색과 연두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잘 표현하였다.

‘헌종 태봉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장태(藏胎) 문화를 의례화시켜 새로 태어나는 왕자녀의 태를 길지(吉地)에 묻는 독특한 안태의례(安胎儀禮)를 정착시킨 조선왕실의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자, 장조의 태실을 그린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사성·희소성이 돋보인다. 아울러 제작 동기와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태실과 관련된 왕실 회화로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 건칠보살좌상(乾漆菩薩坐像)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건칠보살좌상(乾漆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124.5cm(보관 포함), 상 높이 117.55cm, 보관 높이 26.2cm  
무릎 폭 74.9cm, 최대너비 76.25cm

○ 재 질 : 삼베, 옷칠, 나무

○ 형 식 : 보관을 쓰고 설법인(說法印)을 한 보살좌상

○ 조성연대 : 고려 말~조선 초

○ 사 유

‘건칠보살좌상’은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은 설법인(說法印)을 결한 좌상이다. 제작기법은 건칠(乾漆)로서, 건칠은 흙으로 빚은 소조

상을 만든 뒤 그 위에 여러 겹의 천을 바르고 옷칠한 다음 소조상을 제거한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건칠불상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는 신라 말~고려 초 제작으로 추정되는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며, 그 다음으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10세기 초)이 오래된 건칠불 사례로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건칠불 사례는 20여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건칠불 자체만으로도 불교조각사에서 희소한 가치를 지닌다.

이 건칠보살좌상은 124.5cm의 큰 규모에 근엄하면서도 정교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안정된 비례감과 중후한 신체 표현, 사람 손처럼 양감을 강조한 두 손, 자연스럽게 땅아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석영재질을 감입한 눈동자 등 사실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교함은 얼굴에서 풍기는 근엄함과 넓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장대함과 대조되면서 당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좌상'은 후대의 보수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 현존하는 건칠보살상 중 가장 큰 규모가 크며 중후한 모습을 통해 중량감 넘치는 조형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유행한 건칠기법과 공예기술이 모두 반영된 점에서 보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높다.

## □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金銅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金銅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복장유물 18건 195점
- 규 격 : 불상높이 69.25cm, 최대폭 48.85cm, 어깨 폭 26.95cm,
  - 관음보살 높이 86.42cm, 어깨 폭 20.50cm,
  - 대세지보살 높이 86.43cm, 어깨 폭 20.50cm
- 재 질 : 금동, 종이, 직물
- 형 식 :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상
- 조성연대 : 1333년(충숙왕 2)
- 사 유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1333년(충숙왕 2)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진 불상으로, 본존 아미타여래와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구성되었다. 고려 14세기 삼존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었으며 편년의 기준이 되는 도상과 양식을 지닌 점에서 한국 불교조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불상과 보살상에서 보이는 귀공자풍의 이목구비와 단아한 형태, 동그란 형태의 중간계주, 높은 보계와 보계를 묶어 올린 방식, 유려하게 살아 있는 신체의 굴곡, 단정하게 묶은 내의의 띠 자락, 이중으로 겹쳐 만든 화형(花形) 보관(寶冠)과 다양한 기법으로 새기고 붙인 장식 등에서 14세기 유행했던 불상 양식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뛰어난 조각과 주조기술, 금속공예 기법을 두루 살필 수 있어 중요하다.

한편, 좌상(坐像)의 본존불과 입상(立像)의 협시보살 형식, 다라니가 찍힌 복장발원문,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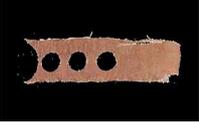
적힌 이름의 정열방식, 연기법송(緣起法頌)의 등장, 보살상의 봉함목(封緘木) 형태와 묵서(墨書) 등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복장유물은 조성연대가 적힌 발원문을 비롯하여 발원문 편, 시주자의 이름이 적힌 다라니, ‘관(觀)’이라는 묵서가 있는 황초폭자, 영가군부인 권씨의 인장과 묵서가 있는 구회이다라니 등 중요한 물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주자 장현(張鉉)과 그의 처 선씨(宣氏), 주관자(동량) 행인(行因), 그리고 주복장의 주관자 오회(烏迴)와 시발원자 김진(金稷), 이겸(李謙) 등 제작에 참여한 많은 시주자와 발원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삼존불을 시주한 김진과 이겸은 고위 관직을 지낸 인물들로서 원나라 태황태후를 하례하거나 중요 불사에 참여한 행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역사적 가치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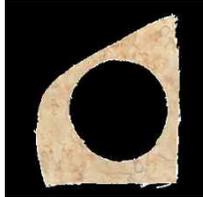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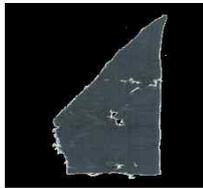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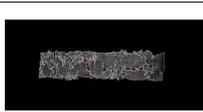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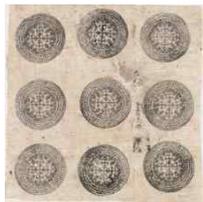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 아미타여래와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이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일괄로 모두 남아 전하는 사례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불상이 지닌 양식과 도상, 조형성, 그리고 발원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고려 후기 불상의 제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대상 복장유물 목록>

분류		1	사진	시대	수량	크기cm	비고
공통	1	복장발원문		1333년	1	56.7×60.3	1915년 구입 덕수5425
	소계		1건1점				
아미타 여래	1	다라니		조선 시대	35	세로 23.2~23.2 가로 50.0~51.8	주서로 찍은 목판본으로 『조상경』에 나온 진언 을 모아 새긴 것
	2	다라니		조선 시대	33	세로 21.9~22.7 가로 26.2×26.8	『대불정수능엄신주』와 『보처진언』을 새긴 다라니
	소계		2건68점				
관음 보살	1	「수구근본 천수존승육 자준제소재 등 진 언 합 부」 다라니		고려 시대 (1313)	16 (완15, 편1)	53.5×36.8	□□隨求根本千手尊勝 六字准提消災等眞言合 部 皇帝万年 皇后 皇太后 皇太子 主上聖德日新 本朝永享千秋 諸王宗室 同增福壽 雨陽順 百穀稔 萬民樂 佛日明 法燈輝 法界生全 共證菩提之願 通憲大夫檢校評理 宋英 皇慶二年三月日 刻手定心 1313년(황경 2년) 동헌 대부 김교평리 송영이 중국의 황제, 고려의 임

분류		1	사진	시대	수량	크기cm	비고
							금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일체중생과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하며 판각한 다라니 판본
	2	부장발원문편		1333년	1	10.2×44.4	乃火伊 四季 苐次伊 甫同 仇次伊 痕珠 安加 占勿伊 □伊 古火伊 石加 信花 於屯伊 其每 多勿伊 万德 虫介 卜壯 里壯 九月 李天補 宋富 崔連 李氏 徐竜 思遠 奴介 懷遠 申貞 金瑾 元吉 李俊 安(화압) 釋洪 成奇 安起儒 全憲 (화압) 梁檜 金彦 南天老 道安 宗甫 林(화압) 宋平 崔(화압) 懷遠 至慈 龜兒 圓解 李(화압) 宣益 (화압) (화압) 永丛(鄰) (또는 永嚴) 淹 陳裕 天有 (화압) 自安
	3	구회인다라니(금강계만다라)		고려시대	2		덕수3363-1-2(德龍, 文壯, 奉龍, 呂之, 三龍, 龍眼 목서)  덕수3363-14-2(李氏와 永嘉郡夫人 權氏 목서)
	4	십육회인다라니(금강계만다라)		고려시대	1	측정불가	
	5	불설락차다라니경		고려시대	1	좌변 37.0, 우변 37.5 가로 상단60.8, 하단 59.9 광고 좌변20.4 우변 20.6	진언을 한자와 실답자로 병기하여 판각. 1행 15자로 한자로 기술된 부분에는 구절과 음운, 성조표시 있음

분류	1	사진	시대	수량	크기cm	비고
6	원권다라니 (금강계만 다라)①		고려 시대	20 (완13 /반7)	37.5×35.2	가장 안쪽에는 삼지형태로 5개의 원이 나열되어 있음. 각 원안에 금강계만다라 오불을 뜻하는 범자를 적음. 오불 주변은 연꽃잎으로 둘러싸고 그 안의 원에도 범자를 적음. 이를 둘러싸고 4겹으로 진언을 두름. 가장 바깥쪽 네 모서리에는 각 방위를 상징하는 범자를 새겼음.
7	원권다라니 (금강계만 다라)②		고려 시대	6	41.5×41.0	중앙에 열십자형태로 원을 배치하고 그 속에 금강계만다라의 다섯 부처를 상징하는 범자를 적음. 이를 연꽃잎이 둘러싸고, 다시 4겹으로 진언문이 에워싼 형식임. 가장바깥쪽 네 모서리에는 각 방위를 상징하는 범자를 새김
8	황초폭자		고려 시대	1	38.5×51.0	관음보살상의 황초폭자임을 알려주는 ‘觀’이라는 묵서와 방위를 알려주는 범자 주서가 남아 있음 덕수 3363-1-3
8	직물편		고려 시대	1	5.4×60.5	紋綾 덕수3363-1-4
			고려 시대	1	3.9×57.4	紬 덕수3363-1-5
			고려 시대	1	3.0×53.5	紬 덕수3363-1-6
			고려 시대	1	3.4×19.0	紋綾 덕수3363-1-7
			고려 시대	1	3.5×17.5	紋綾 덕수3363-1-8
			고려 시대	1	8×28.5	紬 덕수3363-1-9
			고려 시대	1	7.3×21.0	紬 덕수3363-1-10
			고려	1	8.9×3.1	紋綾

분류		1	사진	시대	수량	크기cm	비고
				시대			덕수3363-1-11
				고려 시대	1	15.1×12.1	紬 덕수3363-1-12
				고려시대	1	7.5×12.1	紬 덕수3363-1-13
				고려 시대	1	19.8×10.3	素綾 덕수3363-1-14
				고려 시대	1	8.7×28.5	素羅 덕수3363-1-15
				고려 시대	1	4.3×21.3	素羅 덕수3363-1-16
		소계	8건61점				
대세지 보살	1	구회인다라니 (금강계만다라)		고려 시대	1	37.7×37.9	구회인 다라니 사이에는 '李(화압)'과 '永嘉郡夫人 權'이라는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인장이 별도로 날인되어 있음
	2	십이회인다라니 (금강계만다라)		고려 시대	1	39.7×36.2	원권 다라니 사이에는 '永嘉郡夫人 權'이라는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어 權氏之印'이 라는 인장이 찍혀 있음 좌측 하단 모서리에는 화압이 남아 있음
	3	십육회인다라니 (금강계만다라)		고려 시대	1	40,6×39.8	십육 개의 원권 다라니 사이에는 '金穰'이라는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永嘉權氏'라는 인 장이 찍혀 있음
	4	원권다라니 (금강계만 다라)①		고려 시대	40	33.6×35.5	

분류	1	사진	시대	수량	크기cm	비고
						
5	원권다라니 (금강계만 다라)②		고려 시대	18	33.9×38.4	
6	원권다라니 (금강계만 다라)③		고려 시대	3	40.0×40.9	인출상태가 좋지 못함. 여러 차례 사용한 판본을 찍어낸 것으로 추정
7	수구근본천 수준승욕자 준제소재등 진언합부 다라니		고려 시대	1	55.8×57.7	관음보살상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
	소계			7권 65점		
합계				19권 195점		

##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도연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낙산길 393-27, 도연사
- 수 량 : 7권 2책
- 규 격 : 27.3×16.2cm(匡高 21.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05년(태종 5) 경 판각, 15세기 인출
- 사 유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 7권 2책은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승려 신문(信文)이 전라도 운제현의 도솔산에 위치한 안심사(安心寺)에서 조성한 불교경판을 후대에 인출한 경전이다. 변상도 1면을 제외하고 완질본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동일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 중 보물로 지정된 자료와 비교할 때 시주·간행정보 전체가 확인되며, 특히 권1~3은 매우 희소한 권차라는 점에서 자료적인 완전성이 높다.

도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불경 출판인쇄 경향과 각수의 변상도(變相圖) 제작

수준, 고려 말 우왕(禡王) 때와 조선 초 태종(太宗) 때의 불교사상 경향을 추적할 수 있는 원천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온전하고 완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정 예고 사진】



〈장조 태봉도〉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



〈건칠보살좌상〉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유물(발원문)〉



〈묘법연화경〉